

18世紀 國語 漢字音 聲母의 表記 樣相

吳 鍾 甲

〈차 례〉

- | | |
|----------|--------|
| 1. 序 論 | 3) 脣音系 |
| 2. 本 論 | 4) 齒音系 |
| 1) 牙·喉音系 | 3. 結 論 |
| 2) 舌音系 | |

1. 序 論

국어 한자음은 중국 中古 이후의 韻書에 나타난 反切을 국어의 음운체제로 이식해 놓은 ‘正音’과, 이러한 정음과는 달리 한자의 聲符에 유추되거나 고유어의 음운변화에 이끌린 ‘俗音’의 두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두 유형의 구별은 15세기에 東國正韻이 편찬된 이래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전자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그 시대의 표준음으로서 후자에 대한 기준으로 작용하였고, 후자 역시 전자의 표음에 영향을 끼쳐 왔다. 이처럼 국어 한자음에서 정음과 속음의 차이가 있다는 사실은 역대의 문헌(주로 諺解書)에 表音된 한자음이 정음을 반영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속음을 반영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불러 일으키기에 충분하다. 필자는 이러한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 일련의 작업을 전개

* 영남대학교 교수

해 왔으며, 본고 역시 이러한 작업의 연속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吳鍾甲(1989)에서는 거의 동시대에 간행된 華東正音通釋韻考(1748)와 三韻聲彙(1751)의 한자음을 비교한 결과, 기대와는 달리, 당시에 정음의 성격을 지닌 운서의 표음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吳鍾甲(1992)에서는 19세기 충북방언을 반영한 女小學의 한자음 표기를 고찰하였다. 이 책의 諺解文은 충북방언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당시의 中央語와는 많은 차이를 보인다.(이재춘 1991) 그러나, 原文의 한자 표음에서는 奎章全韻(1792)의 字音¹⁾을 철저히 따르고 있어 그 표음이 매우 규범적임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吳鍾甲(1993)에서는 경상도방언을 반영한 十九史略諺解(1772)의 한자음 표기를 고찰하였다. 그런데 십구사략언해의 경우는, 여소학의 경우와는 달리, 언해문과 한자음이 모두 당시의 경상도방언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그렇다면 18세기 중앙어의 한자음은 어떻게 표기되었을까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의문이 될 것이다.

본고에서는 18세기 중앙어의 한자음 표기 실상을 밝히기 위해 御製訓書諺解(1756)와 御製百行源(1765)의 한자음을 자료로 삼았다.²⁾ 전자는 ‘英祖가 王世子 및 후세의 임금들에게 내린 일종의 敎訓書’라고 할 수 있다. 원래의 한문본 御製訓書(영조 32년, 1756)를 같은 해에 언해하여 간행한 것으로 그 내용은 性道教에 대한 설명, 訓書, 稼穡篇(附錄) 등으로 되어 있다. 본서에는 漢文 原文이 없고 諺解文만 실려 있는데 언해문 속의 한자에는 한글로 表音해 놓았다. 본고에서는 이 한자음을 자료로 이용하였다. 후자는 영조 41년(1765)에 간행되었으며, 그 내용은 ‘孝行이 百行의 근본임을 강조하고 백성들이 이를 깨달아 실천에 옮기도록 권장한 글’이다. 이 책은 앞 부분에 한문 원문이 실려 있고, 뒷 부분에 언해문이 실려 있는데, 한문 원문의 漢字 한자한자에 표음되어 있다.³⁾

1) 奎章全韻의 字音과 三韻聲彙의 字音은 완전히 서로 일치한다. (오종갑, 1989)

2) 두 책에 국한한 것은 이 책과 비슷한 시기에 간행된 華東正音通釋韻考, 三韻聲彙, 그리고 十九史略諺解의 漢字音과의 비교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3) 어제훈서언해와 어제백행원에 대한 자세한 해제는 田光鉉(1982)를 참고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위의 두 책에 나타난 한자음 자료를 中期 韓國 漢字音⁴⁾과의 대비를 통해 18세기까지의 변천 양상을 살펴 보고, 또 그것을 18세기 당대의 韻書音 및 경상도방언의 한자음과 비교함으로써 正音과 俗音의 차이, 방언간의 차이 등을 밝히고자 한다.

2. 本 論

여기서는 18세기 中央語를 반영하고 있는 御製百行源과 御製訓書諺解에 나타난 漢字와 그 字音(이하에서는 ‘중양음’으로 약칭함.)들을 音系列로 제시하고,⁵⁾ 이들을 訓蒙字會(1527), 新增類合(1576), 石峰千字文(1583) 등에 반영된 중기 한국 한자음(이하에서는 ‘중기음’으로 약칭함.)과 비교함으로써 통시적으로 국어 한자음이 어떻게 변천해 왔는지 밝히고, 또 그것을 18세기 당대의 삼운성회·화동정음통석운고의 字音(이하에서는 ‘운서음’으로 약칭함.) 및 십구사략언해의 字音(이하에서는 ‘사략음’으로 약칭함.)과 비교함으로써 同時代에 한자음이 얼마나 다양하게 표음되고 있었는지 그 실상을 밝혀 보기로 한다. 그리고 中國 中古 漢音을 반영한 廣韻의 反切을 제시함으로써 중국음(華音)이 국어음(東音)으로 어떻게 정착되었는지 짐작하게 하였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화음이 동음으로 정착된 이후의 변천에 주된 관심을 기울이기 때문에 華音이 東音으로 정착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음운 대응규칙들에 대해서는 論外로 하였다.⁶⁾

- 4) 국어사의 시대 구분에 있어 15, 16세기를 후기 중세국어 시대로 잡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기문, 1972) 여기서의 중기 한국 한자음은 바로 이 시기의 한국 한자음을 잠정적으로 일컫는 용어이다.
- 5) 어제훈서언해와 어제백행원은 9년이란 간행 연대의 차이가 있으나 그들이 반영하고 있는 한자음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점도 발견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이들 兩書의 한자음을 동일하게 취급하였다.
- 6) 화음이 동음으로 정착되는 과정에서 적용된 여러 가지 대응규칙들에 대해서는 박병채(1971), 이돈주(1979), 이윤동(1988) 등을 참조할 수 있다.

1) 牙·喉音系

(1) 見·溪·群母

- 敬 경 見(居慶) 경(字,千,類,三,華,史)⁷⁾ 季 계 見(居悸) 계(類,三,華) 계,계(史)
 眷 권 見(居倦) 권(字,類,三,華) 均 균 見(居勻) 균(類,三,華,史)
 姜 강 見(居良) 강(字,三,華,史) 矜 긍 見(居陵) 긍(字,千,類,三,華)
 記 기 見(居史) 기(類,三,華,史) 几 見(居履) 궤(類,三) 기(華)
 己 기 見(居理) 기(千,類,史,三,華) 景 경 見(居影) 경(字,千,類,三,華,史)
 蹶 월 見(居月) 월(字,類,三,華) 貴 귀 見(居胃) 귀(字,千,類,三,華,史)
 鞠 국 見(居六) 국(字,千,三,華,史) 橘 굴 見(居聿) 굴(字,類,三,華)
 謹 근 見(居隱) 근(字,千,類,三,華) 禁 금 見(居吟) 금(類,三,華)
 今 금 見(居吟) 금(字,類,三,華,史) 金 금 見(居吟) 금(字,千,類,三,華,史)
 既 기 見(居豕) 기(千,類,三,華,史) 癸 계 見(居誅) 규(三) 귀(華) 계(史)
 基 기 見(居之) 기(字,千,類,三,華) 龜 귀 見(居迫) 귀(字,類,史) 구(三) 귀(華)
 舉 거 見(居許) 거(千,類,史,三,華) 京 경 見(舉卿) 경(字,千,類,三,華)
 喬 교 見(舉喬) 교(三,華) 君 군 見(舉云) 군(字,千,類,三,華,史)
 九 구 見(舉有) 구(字,千,類,三,華,史) 耕 경 見(古莖) 경(字,類,三,華,史)
 告 고 見(古到) 고(字,類,三,華,史) 閣 각 見(古落) 각(字,類,三,華)
 敢 감 見(古覽) 감(千,類,三,華,史) 剛 강 見(古郎) 강(字,類,三,華)
 綱 강 見(古郎) 강(字,類,三,華) 剛 강 見(古郎) 강(字,類,三,華)
 膏 고 見(古勞) 고(字,類,三,華,史) 卦 궤 見(古賣) 궤(三,華,史)
 顧 고 見(古暮) 고(字,千,類,三) 구(華) 故 고 見(古暮) 고(千,類,三,史) 구(華)
 界 계 見(古拜) 계(字,類,三,華,史) 甘 감 見(古三) 감(字,千,類,三,華,史)
 結 결 見(古屑) 결(千,類,三,華,史) 貢 공 見(古送) 공(字,千,類,三,華,
 感 감 見(古禪) 감(千,類,三,華,史) 歌 가 見(古俄) 가(字,千,類,三,華,史)
 嘉 가 見(古牙) 가(千,類,三,華,史) 家 가 見(古牙) 가(字,千,三,華) 가,기(史)
 嫁 가 見(古訝) 가(字,類,三,華,史) 稼 가 見(古訝) 가(字,千,類,三,華,史)
 覺 각 見(古岳) 각(類,三,華) 甲 갑 見(古狎) 갑(字,千,類,三,華,史)

7) 어제훈서언해와 어제백행원에 나타난 漢字 및 그 字音, 聲母, 廣韻의 半切, 字(훈몽자회), 千(석봉천자문), 類(신증유합), 三(삼운성취), 華(화동정음통석운고), 史(십구사략언해)의 字音 순서로 제시됨.

觀 관 見(古玩) 관(字,千,類,三,華,史)	館 관 見(古玩) 관(字,千,三,華)
見 견 見(古電) 견(字,千,類,三,華,史)	經 경 見(古定) 경(字,千,類,三,華)
間 간 見(古莧) 간(字,類,三,華,史)	顰 간 見(古莧) 간(三,華)
艱 간 見(古閑) 간(類,三,華,史)	監 감 見(古銜) 감(類,三,華,史)
鑑 감 見(古銜) 감(字,千,類,三,華,史)	降 강 見(古巷) 강(類,三,華,史)
講 강 見(古項) 강(字,類,三,華)	皆 기 見(古諧) 기(千,類,三,華,史)
耿 경 見(古幸) 경(類,三,華,史)	庚 경 見(古行) 경(三,華,史)
國 국 見(古或) 국(字,千,類,三,華,史)	昆 곤 見(古渾) 곤(字,千,類,三,華)
汨 골 見(古忽) 골(三,華)	公 공 見(古紅) 공(字,千,類,三,華,史)
工 공 見(古紅) 공(字,千,類,三,華,史)	功 공 見(古紅) 공(字,千,類,三,華,史)
果 과 見(古火) 과(千,類,三,華,史)	戈 과 見(古禾) 과(字,類,三,華,史)
過 과 見(古禾) 과(千,類,三,華,史)	冠 관 見(古丸) 관(字,千,類,三,華,史)
官 관 見(古丸) 관(字,千,類,三,華,史)	括 괄 見(古活) 괄(字,類,三,華)
光 광 見(古黃) 광(字,千,類,三,華,史)	校 교 見(古孝) 교(字,類,三,華)
教 교 見(古肴) 교(字,類,三,華,史)	交 교 見(古肴) 교(字,千,類,三,華,史)
鼓 고 見(古戶) 고(字,千,類,三,史) 구(華)	居 거 見(古魚) 거(字,千,類,三,華,史)
孔 공 溪(康董) 공(字,千,類,三,華,史)	懇 곤 溪(康恨) 곤(類,三,華)
騫 건 溪(去乾) 건(三,華)	卿 경 溪(去京) 경(字,千,類,三,華,史)
窮 궁 溪(去宮) 궁(類,華,史)	氣 기 溪(去既) 기(字,千,類,三,華)
揭 게 溪(去例) 게(類,三,華)	輕 경 溪(去盈) 경(千,類,三,華,史)
勸 권 溪(去願) 권(千,類,三,華)	闕 권 溪(去月) 권(字,千,類,三,華)
豈 괴 溪(袂僞) 괴(千,類,三,華)	可 가 溪(枯我) 가(千,類,三,華,史)
康 강 溪(苦岡) 강(千,類,三,華,史)	慨 개 溪(苦蓋) 개(類,三,華)
庫 고 溪(苦故) 고(字,類,三) 구(華)	苦 고 溪(苦故) 고(字,類,三,史) 구(華)
坤 곤 溪(苦昆) 곤(字,類,三,華)	顆 과 溪(苦果) 과(三,華)
克 극 溪(苦得) 극(類,三,華,史)	困 곤 溪(苦悶) 곤(千,類,三,華,史)
開 기 溪(苦哀) 기(字,類,三,華,史)	刊 간 溪(苦寒) 간(類,三,華)
考 고 溪(苦浩) 고(字,類,三,華,史)	恐 공 溪(丘用) 공(千,類,三,華,史)
裘 구 群(巨鳩) 구(字,類,三,華)	求 구 群(巨鳩) 구(千,類,三,華,史)
勤 근 群(巨斤) 근(類,三,華,史)	琴 금 群(巨金) 금(字,千,類,三,華,史)
禽 금 群(巨金) 금(字,千,三,華,史)	強 강 群(巨良) 강(字,類,三,華,史)
健 건 群(渠建) 건(類,三,華)	競 경 群(渠敬) 경(千,類,三,華)
極 극 群(渠力) 극(字,千,類,三,華,史)	桀 걸 群(渠列) 걸(三,華,史)

乾 건 群(渠焉) 건(字,類,三,華,史) 瓊 경 群(渠營) 경(字,三,華,史)
 局 국 群(渠玉) 국(字,類,三,華) 其 기 群(渠之) 기(千,類,華)기,기(三)기(史)
 幾 기 群(渠希) 기(千,類,三,華) 及 급 群(其立) 급(千,類,三,華,史)
 竭 갈 群(其謁) 갈(千,類,三,華,史) 具 구 群(其遇) 구(千,類,三,華,史)
 近 근 群(其靳) 근(字,千,類,三,華,史) 戟 극 群(奇逆) 극(字,類,三,華,史)

見·溪·群母에 속하는 字類는, 위의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反切上字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18세기 중앙어에서 전부 ‘ㄱ’으로 표음되었으며, 중기음, 운서음, 사락음 등에서도 동일하게 ‘ㄱ’으로 표음되었다.⁸⁾

그러나 見母에 속한 字類 중 ‘割, 合, 解’와 溪母에 속한 字類 중 ‘闊, 快’는 東晉의 일반적인 표음 경향과 차이를 보일 뿐만 아니라, 18세기 당대의 字音 사이에도 차이를 보이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이 설명된다.

割 할 見(古達) 山開1 曷入 할(字,類) 갈(三,華)
 合 합 見(古沓) 咸開1 合入 합(千,類,史) 갑,합(三,華)
 解 히 見(古陞) 蟹開2 卦去 히(千,類,史) 기,히(三,華)
 闊 할 溪(苦括) 山合1 未入 활(類) 괄(三,華)
 快 쾌 溪(苦夬) 蟹合2 夬去 쾌(類,三,華)

‘割’은 切韻과 廣韻에서 그 반절이 ‘古達切’로 되어 있고, 集韻, 古今韻會舉要, 洪武正韻 등에서도 그 반절이 ‘居曷切’로 되어 있어 운서음 ‘ㄱ’은 이 계통의 음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반절만으로는 ‘割’의 성모가 ‘ㅎ’으로 표음된 이유를 설명하기는 어렵다. 그런데 이 字의 聲符인 ‘害’의 반절을 찾아 보면, 切韻에서는 ‘胡蓋切, 胡葛切’의 둘로, 집운과 홍무정운에서는 ‘下蓋切, 何葛切’의 둘로 나타나므로 여기의 ‘割(할)’은 바로 성부 ‘害’가 가진 二重音 中 ‘할’에 유추된 표음을 알 수 있다.

‘合’의 중앙음 ‘ㅎ’은 중기음의 계승이며, 史略에서도 동일하게 표음되었으나 韻書에서는 ‘ㄱ, ㅎ’ 둘로 표음되어 차이가 있다. 그런데 이 ‘合’은 廣韻에서 그 반절이 ‘古沓切, 侯閣切’의 둘로 나타나므로 중앙음 ‘합’은

8) 어제훈서언해와 어제백행원에 쓰인 한자들이 중기음을 반영한 훈몽자회, 석봉천자문, 신증유합에서 모두 발견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십구사략언해에서도 발견되지 않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의 비교는 공통적으로 나타난 자들의 표음을 비교한 것이다. 이하에서의 자음들의 비교도 여기서의 경우와 동일하다.

뒤의 반절이 반영된 것이고, 운서음 ‘ㄱ, ㅎ’은 이 둘이 모두 반영된 것임을 알 수 있다. ‘解’ 역시 광운에서 그 반절이 ‘古隘切, 佳買切, 胡買切, 胡解切’ 등으로 나타나 앞의 둘은 ‘기’로, 뒤의 둘은 ‘히’로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闊’의 중앙음 ‘ㅎ’은 중기음을 계승한 것이나, 운서에서는 ‘ㄱ’으로 표음되어 양자간에 차이가 있다. ‘ㄱ’으로 표음된 것은 중국 운서의 半切上字(광운: 苦栝切, 집운: 苦滑切, 苦活切)가 그대로 표음에 반영된 것임을 알 수 있으나 ‘ㅎ’으로 표음된 것은 그 반절만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 聲符 ‘活’의 반절을 운서에서 찾아 보면, 광운, 집운, 고금운회거요에서 다 같이 ‘古活, 戶括’로 나타나 二重音字임을 알 수 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闊’의 ‘ㅎ’은 성부 ‘活’의 반절상자 ‘戶’가 東音의 표음에 반영된 것으로 이해된다.

‘快’는 중앙음, 중기음, 운서음이 모두 ‘ㅋ’으로 표음되어 차이가 없으나 溪母字가 東音에서 ‘ㄱ’으로 투영되는 일반적 원칙과는 차이가 있다. 그런데 중국음에서 유기성을 지녔던 계모자의 거의 전부가 동음에서 ‘ㄱ’으로 투영된 것은 한자가 국어에 유입될 당시 우리 phoneme에 有氣音 ‘ㅋ’이 존재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⁹⁾ 그렇다면 ‘快’가 ‘ㅋ’으로 나타난 것은 고유어에서 유기음이 발달하자 그에 따라 유기음화된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2) 曉 · 匣母

興 흥 曉(虛陵) 흥(千,類,三,華,史)	喜 희 曉(虛里) 희(類,三,華,史)
軒 현 曉(虛言) 현(字,類,三,華,史)	驚 효 曉(許矯) 효(三,華)
諱 휘 曉(許貴) 휘(類,三,華)	香 향 曉(許良) 향(字,類,三,華)
悅 황 曉(許昉) 황(類,三,華)	況 황 曉(許訪) 황(三)
享 향 曉(許兩) 향(類,三,華,史)	兄 형 曉(許榮) 형(字,千,類,三,華,史)
訓 훈 曉(許運) 훈(字,千,類,三,華,史)	海 히 曉(呼改) 히(字,千,類,三,華,史)
血 혈 曉(呼決) 혈(字,類,三,華,史)	婚 혼 曉(呼昆) 혼(字,類,三,華)

9) 申叔舟의 東國正韻序에서도 ‘國語多用溪母 而字音則獨失之一音而已’라고 하여 ‘失’을 제외한 溪母字 모두가 初聲之變을 일으켰음을 증언하고 있다.

昏 혼 曉(呼昆) 혼(類,三,華,史)	忽 흘 曉(呼骨) 흘(類,三,華,史)
荒 황 曉(呼光) 황(千,類,三,華,史)	孝 효 曉(呼敎) 효(字,千,類,三,華,史)
貨 화 曉(呼臥) 화(字,類,三,華)	漢 한 曉(呼吁) 한(千,三,華,史)
顯 현 曉(呼典) 현(類,三,華,史)	悔 회 曉(呼罪) 회(類,三,華,史)
好 호 曉(呼皓) 호(字,類,三,華,史)	喚 환 曉(火貫) 환(三,華)
呼 호 曉(荒烏) 호(字,類,三,史) 후(華)	行 형 匣(戶庚) 형(字,千,類,三,華,史)
形 형 匣(戶經) 형(字,千,類,三,華)	紅 홍 匣(戶公) 홍(字,類,三,華)
洪 홍 匣(戶公) 홍(千,類,三,華,史)	禾 화 匣(戶戈) 화(字,類,三,華,史)
和 화 匣(戶戈) 화(千,類,三,華,史)	穫 화 匣(戶郭) 화(千,類,三,華)
懷 회 匣(戶乖) 회(千,類,三,華,史)	乎 호 匣(戶吳) 호(三,史) 후(華)
痕 혼 匣(戶恩) 혼(字,類,三,華,史)	遐 하 匣(胡加) 하(字,千,類,三,華)
河 하 匣(胡歌) 하(字,千,類,三,華,史)	何 하 匣(胡歌) 하(千,類,三,華,史)
夏 하 匣(胡駕) 하(字,千,類,三,華,史)	下 하 匣(胡駕) 하(字,千,類,三,華,史)
學 학 匣(胡覺) 학(字,千,類,華) 학(三,史)	惠 혜 匣(胡桂) 혜(字,千,類,華,史) 혜(三)
奚 히 匣(胡鷄) 히(三,華)	兮 헤 匣(胡鷄) 헤(三,華) 헤, 헤(史)
黃 황 匣(胡光) 황(字,類,三,華,史)	皇 황 匣(胡光) 황(字,千,類,三,華,史)
弘 홍 匣(胡肱) 홍(類) 횡(三,華)	或 흑 匣(胡國) 흑(三) 흑(華)
惑 흑 匣(胡國) 흑(類,三,華,史)	毫 호 匣(胡刀) 호(三,華)
候 후 匣(胡遘) 후(字,類,三,華,史)	后 후 匣(胡遘) 후(字,類,三,華,史)
後 후 匣(胡遘) 후(字,千,類,三,華)	恒 흥 匣(胡登) 흥(千,類,三,華)
浩 호 匣(胡老) 호(類,三,華)	厦 하 匣(胡雅) 하(字,類,三,華)
寒 한 匣(胡安) 한(字,千,類,三,華,史)	玄 현 匣(胡涓) 현(字,千,類,三,華,史)
護 호 匣(胡誤) 호(類,三) 후(華)	賢 현 匣(胡田) 현(字,千,類,三,華,史)
咸 함 匣(胡讒) 함(類,三,華,史)	戶 호 匣(侯古) 호(字,類,三) 후(華)
洽 함 匣(侯來) 함(類) 협(三,華)	翰 한 匣(侯吁) 한(字,三,華)
厚 후 匣(胡口) 후(類,三,華,史) ¹⁰⁾	

曉母와 匣母에 해당하는 자류의 18세기 중앙음은 중기음과 마찬가지로 거의 전부 ‘ㅎ’으로 표음되었으며, 18세기의 운서음 및 사략음에서도 그 성모가 ‘ㅎ’으로 표음되어 차이가 없다. 그러나 다음의 字類는 그 표음에

10) ‘厚’는 어제훈서언해(12b)에서 그 음이 ‘우’로 표음된 예가 나타나는데, 이것은 誤刻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십구사략언해에서 ‘夫’를 ‘부, 후, 우’ 등으로 표음한 예도 발견되므로 ‘厚’를 ‘우’로 표음한 것도 어두에서의 ‘ㅎ’ 탈락의 결과가 표음에 반영되었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차이를 보인다.

向 향 曉(許亮) 宕開3 漾去 향(類) 상,향(三,華)
 活 활 匣(戶括) 山合1 末入 활(類) 팔,활(三,華)
 吁 우 曉(況于) 遇合3 虞平 후(三) 후,우(俗音)(華)
 畦圭 匣(戶圭) 蟹合4 齊平 휴(三) 휘(華)
 皓 호 匣(胡老) 效開1 皓上 호(類,華) 고,호(三)

‘向’의 18세기 중앙음은 중기음의 ‘ㅎ’과 차이가 없으나 18세기의 운서음에서는 ‘ㅅ,ㅎ’의 둘로 나타나 차이를 보인다. 그 이유는, 광운에서 그 반절이 ‘式亮切, 許亮切’의 둘로 나타나고 있음을 볼 때, 운서에서는 전자가 ‘ㅅ’으로, 후자가 ‘ㅎ’으로 반영되었으며, 중앙음에서는 후자만 반영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리고 ‘活’ 역시 광운의 반절이 ‘古活切, 戶括切’의 둘로 나타나는데, 중앙음은 후자가 반영된 것이고, 운서음은 이 둘이 모두 반영된 것이다.

‘吁’와 ‘畦’의 18세기 중앙음은 그 성모가 각각 ‘ㅇ’과 ‘ㄱ’으로 표음되었으나 同時代의 운서음에서는 다 같이 ‘ㅎ’으로 표음되어 차이가 있다. 그런데 이러한 차이는 운서음이 그 반절에 따라 표음된 데 비해 중앙음은 각각의 성부 ‘于’(羽俱切)와 ‘圭’(古携切)에 유추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華東에서는 ‘吁(우)’를 俗音으로 규정하였다.

‘皓’는 중앙음, 중기음, 운서음에서 모두 ‘ㅎ’으로 표음되었으나 三韻音에서는 ‘ㄱ’으로 표음된 것이 있어 차이를 보인다. 이것은 삼운에서 東晉定音의 기준으로 삼은 四聲通解音에¹¹⁾ ‘ㄱ, ㅍ’의 둘이 있는데, 전자를 기준으로 삼은 것은 ‘ㄱ’으로, 후자를 기준으로 삼은 것은 ‘ㅎ’으로 표음하였기 때문이다.

(3) 疑・影・喻母

原 원 疑(愚袁) 원(字,類,三,華)	魚 어 疑(語居) 어(字,千,類,三,華,史)
銀 은 疑(語巾) 은(字,千,類,三,華)	迎 영 疑(語京) 영(類,三,華,史)
牛 우 疑(語求) 우(字,類,三,華,史)	嚴 엄 疑(魚嚴) 엄(字,千,類,三,華)

11) ‘華音則以洪武正韻字母爲主 而一從四聲通解諺韻之音’(三韻聲彙序)

- 言 언 疑(語軒) 언(字,千,類,三,華,史)
 鯨 어 疑(魚巨) 어(三,華)
 諺 언 疑(魚變) 언(三,華,史)
 涯 애 疑(五佳) 애(字,類,三,華)
 莪 아 疑(五歌) 아(三,華)
 艾 애 疑(五蓋) 애(字,類,三,華)
 偶 우 疑(五口) 우(類,三,華,史)
 雅 아 疑(五下) 아(千,類,三,華)
 外 외 疑(五會) 외(字,千,類,三,華,史)
 源 원 疑(愚袁) 원(三,華)
 虞 우 疑(遇俱) 우(千,三,華,史)
 議 의 疑(宜寄) 의(類,三,華)
 五 오 疑(疑古) 오(字,千,類,三,史) 우(華)
 藹 애 影(於蓋) 애(三,華)
 殷 은 影(於斤) 은(千,類,三,華,史)
 陰 음 影(於金) 음(字,千,類,三,華,史)
 抑 억 影(於力) 억(類,三,華)
 億 억 影(於力) 억(字,類,三,華,史)
 嬰 영 影(於盈) 영(三,華)
 印 인 影(於刃) 인(字,類,三,華,史)
 因 인 影(於眞) 인(千,類,三,華,史)
 衣 의 影(於希) 의(字,千,類,三,華,史)
 咽 열 影(烏結) 열(三,華)
 愛 이 影(烏代) 이(字,千,類,三,華,史)
 恩 은 影(烏痕) 은(字,類,三,華)
 往 왕 影(紆往) 왕(千,類,三,華,史)
 幼 유 影(伊謬) 유(字,類,三,華,史)
 雨 우 喻(王矩) 우(字,千,類,三,華,史)
 雲 운 喻(王分) 운(字,千,類,三,華,史)
 永 영 喻(于憬) 영(千,類,三,華)
 謂 위 喻(于貴) 위(千,類,三,華,史)
 衛 위 喻(于歲) 위(字,類,三,華,史)
 尤 우 喻(羽求) 우(千,三,華,史)
- 語 어 疑(魚居) 어(字,千,類,三,華,史)
 儀 의 疑(魚羈) 의(字,千,類,三,華,史)
 玉 옥 疑(魚欲) 옥(字,千,類,三,華,史)
 我 아 疑(五可) 아(字,千,類,三,華,史)
 顏 안 疑(五姦) 안(字,類,三,華,史)
 娛 오 疑(五故) 오(類) 우(三,華)
 堯 요 疑(五聊) 요(三,華,史)
 吾 오 疑(五乎) 오(字,類,三,史) 우(華)
 元 원 疑(愚袁) 원(三,華,史)
 御 어 疑(牛倨) 어(字,千,類,三,華,史)
 愚 우 疑(遇俱) 우(字,千,類,三,華)
 義 의 疑(宜寄) 의(字,千,類,三,華,史)
 於 어 影(央居) 어(千,類,三,華,史)
 焉 언 影(於乾) 언(千,三,華) 인(史)
 飲 음 影(於禁) 음(字,類,三,華,史)
 意 의 影(於記) 의(字,千,類,三,華,史)
 憶 억 影(於力) 억(類,三,華)
 一 일 影(於悉) 일(字,類,三,華,史)
 苑 원 影(於阮) 원(三,華,史)
 姻 인 影(於眞) 인(字,類,三,華)
 乙 을 影(於筆) 을(三,華) 을,을(史)
 迺 오 影(憶俱) 오(類) 우(三,華)
 屋 옥 影(烏谷) 옥(字,類,三,華)
 惡 오 影(烏路) 오(三) 우(華)
 鬱 을 影(紆物) 을(三,華)
 亞 아 影(衣駕) 아(三,華,史)
 益 익 影(伊昔) 익(千,類,三,華,史)
 禹 우 喻(王矩) 우(千,三,華,史)
 云 운 喻(王分) 운(千,類,三,華,史)
 位 위 喻(于愧) 위(字,千,類,三,華,史)
 矣 의 喻(于紀) 의(三,華,史)
 于 우 喻(羽俱) 우(三,華,史)
 王 왕 喻(雨方) 왕(字,千,類,三,華,史)

賴 원 喻(雨元) 원(字,三,華,史)	垣 원 喻(雨元) 원(字,千,類,三,華)
域 역 喻(雨逼) 역(字,類,三,華)	右 우 喻(云久) 우(字,千,類,三,華,史)
有 유 喻(云久) 유(千,類,三,華,史)	友 우 喻(云久) 우(字,千,類,三,華,史)
爲 위 喻(蓮支) 위(千,類,三,華,史)	異 이 喻(羊史) 이(千,類,三,華,史)
夜 야 喻(羊謝) 야(字,千,類,三,華,史)	豫 예 喻(羊洳) 예(千,類) 여(三,華)
已 이 喻(羊已) 이(三,華,史)	亦 역 喻(羊益) 역(千,類,三,華,史)
易역,이 喻(羊益) 역(字,千,類) 역,이(三,華,史)	驛 역 喻(羊益) 역(三,華)
野 야 喻(羊者) 야(字,千,類,三,華,史)	也 야 喻(羊者) 야(千,類,三,華,史)
鹽 염 喻(余廉) 염(字,類,三,華)	勇 용 喻(余隴) 용(千,類,三,華)
用 용 喻(余頌) 용(千,類,三,華,史)	育 육 喻(余六) 육(字,千,類,三,華)
欲 욱 喻(余蜀) 욱(三,華)	誘 유 喻(與久) 유(字,類,三,華)
酉 유 喻(與久) 유(三,華)	歟 여 喻(與魚) 여(三,華,史)
楊 양 喻(與章) 양(字,類,三,華)	陽 양 喻(與章) 양(字,千,類,三,華,史)
揚 양 喻(與章) 양(類,三,華,史)	羊 양 喻(與章) 양(字,千,類,三,華,史)
貽 이 喻(與之) 이(字,千,類,三,華)	翌 익 喻(與職) 익(三,華)
養 양 喻(餘亮) 양(字,千,類,三,華,史)	庸 용 喻(餘封) 용(千,類,三,華,史)
遙 요 喻(餘昭) 요(千,類,三,華)	淫 음 喻(餘針) 음(類,三,華,史)
役 역 喻(營隻) 역(字,類,三,華)	盈 영 喻(以成) 영(千,類,三,華,史)
延 연 喻(以然) 연(類,三,華,史)	予 여 喻(以諸) 여(字,類,三,華,史)
與 여 喻(以諸) 여(千,類,三,史) 유(華)	愈 유 喻(以主) 유(類,三,華,史)
由 유 喻(以周) 유(類,三,華,史)	猶 유 喻(以周) 유(千,類,三,華,史)
夷 이 喻(以脂) 이(字,三,華,史)	衍 연 喻(以淺) 연(類,三,華)
惟 유 喻(以追) 유(千,類,史) 위(三,華)	維 유 喻(以追) 유(千,類,三) 위(華)
逸 일 喻(夷質) 일(千,類,三,華,史)	

疑·影·喻母에 속한 字類는 중기음, 18세기의 중앙음, 운서음 및 사략음이 거의 전부 ‘ㅇ’으로 표음되었다. 오직 華東에서만 다음의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ㅇ’으로 표음된 자류를 볼 수 있는데, 그것은 華東 편찬자의 定音 태도에 기인한다.

仰 앙 疑(魚兩) 宕開3 養上 앙(字,千,類,三,史) 앙(華)
 願 원 疑(魚怨) 山合3 願去 원(千,類,三,史) 원(華)
 業 업 疑(魚怯) 咸開3 業入 업(字,千,類,三,史) 업(華)

月 월 疑(魚闕) 山合3 月入 월(字, 千, 類, 三, 史) 월(華)
 曰 왈 喻(王伐) 山合3 月入 왈(千, 類, 史) 월(三) 왈(華)
 悅 열 喻(戈雪) 山合3 薛入 열(千, 類, 三, 史) 열(華)

華東正音通釋韻考의 凡例에는,

ㅇㅇㅇ 此三者 出聲相近 不必異制 角羽宮三音 竝有此初聲 故隨其音 而小變字樣 以別所屬

이란 기록이 있다. 이것은 ‘ㅇㅇㅇ’으로 표음된 한자의 音價가 거의 차이가 없어 표기를 달리할 필요가 없으나, 五音體系에 맞추기 위해 글자의 모양을 약간 변형시킨 것임을 설명한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이해가 타당한 것이라면, 위의 字類는 실제로 있어서는 그 음가가 ‘ㅇ’과 차이가 없었다고 할 것이다. 華東에서 위의 字들을 찾아 보면, 그들의 華音初聲이 모두 ‘ㅇ’으로 표음되고 있어, 東音에서도 五音이 상실되지 않도록 하려는 편찬자의 의도를 짐작할 수 있다.

狠 亨 疑(五還) 山合2 刪平 혼(類) 훈(三, 華)
 以 이 喻(羊已) 止開3 止上 이(千, 三, 華) 이, 니(史)
 噫 희 影(於其) 止開3 之平 희(三, 史) 이(華)
 奕 혁 喻(羊益) 梗開3 昔入 역(三) 혁(華)

‘狠’은 疑母字로서 일반적인 음대응에 의하면 ‘ㅇ’으로 표음되어야 하나 여기서는 ‘ㅎ’으로 표음되었다. 集韻에 ‘口很切’이 보이긴 하나 성모 ‘ㅎ’의 출현을 설명해 주지 못하며, 성부 ‘艮’ 역시 그 반절이 ‘古恨’으로 나타나 ‘ㅎ’으로 표음됨을 설명해 주지 못한다. 그러므로 이 字의 성모가 ‘ㅎ’으로 표음된 것은 다른 곳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밖에 없는데, 그에 대한 설명은 다음의 두 경우가 모두 가능하리라고 생각된다.

첫 번째로 가능한 설명은 字形의 유사에 의한 類推音으로 보는 것이다. 廣韻에서는 ‘很俗作狠’이라고 하여 ‘很’과 ‘狠’이 통용되었음을 지적하고 있는데, 후자의 성모가 ‘ㅎ’으로 표음된 것은 전자 ‘很’(胡壘切)의 성모에 유추된 것으로 보는 것이다. (이윤동 1988:54) 그리고 또 하나의 설명은 사성통해에 ‘很’의 華音이 ‘흔’(匣母)으로 표음되어 있는데, 三韻

에서는 이것을 근거로 하여 東晉 ‘ㅎ’을 규정하였으며, 어제백행원의 ‘ㅎ’ 역시 이 계통의 음을 반영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以’는 史略에서 ‘ㅇ, ㄴ’의 둘로 표음되었다. 그것은 뒤의 泥母에서 보게 될 ‘ㄴ’ 앞에서 ‘ㄴ > ㅇ’ 변화가 일어나자 이에 대한 過度矯正으로 오히려 ‘ㄴ’ 모음 앞에서 ‘ㄴ’이 첨가된 것이다.

‘噫’는 訓書, 三韻, 史略에서는 ‘ㅎ’으로 표음되고, 華東에서는 ‘ㅇ’으로 표음되어 차이가 있다. 화동에서 ‘ㅇ’으로 표음된 것은 반절에 따른 것으로 보이나, ‘ㅎ’으로 표음된 경우는 그 표음의 근거가 무엇인지 밝히기가 쉽지 않다. 광운에는 ‘嘻 歎也’, ‘噫 恨聲’으로 되어 있고, 사성통해에는 ‘噫 恨聲又歎也’ ‘嘻 歎辭’로 되어 있어, 이 두 字는 그 의미로 볼 때 공유하는 부분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마 이 의미의 공유가 ‘噫’를 ‘嘻’(許其切)와 동일시하게 되고, 그 음도 그것에 유추되어 ‘ㅎ’으로 바뀐 것으로 생각된다.

‘奕’은 중앙음과 화동음은 동일한데 삼운음에서 차이가 있다. 삼운과 화동에서 다 같이 東晉 定音의 기준으로 삼았던 華音이 ‘이’인데도 삼운에서는 동음을 ‘ㅇ’으로, 화동에서는 동음을 ‘ㅎ’으로 표음한 것은 운서 편찬자들의 俗音 인식의 차이 때문이다.(오종갑 1989 : 119) 그리고 俗音 ‘ㅎ’이 나타나게 된 이유는 唯母의 중국 上古音 [ɣ]가 동음 성립 과정에서 작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이윤동 1988 : 52)

2) 舌音系

(1) 舌頭音

① 端 · 透 · 定母

端 단 端(多官) 단(千, 類, 三, 華)	等 등 端(多肯) 등(千, 類, 三, 華, 史)
黨 당 端(多郎) 당(類, 三, 華, 史)	典 댐 端(多珍) 댐(字, 千, 類, 三, 華)
德 덕 端(多則) 덕(字, 千, 類, 三, 華, 史)	得 득 端(多則) 득(千, 類, 三, 華, 史)
都 도 端(當孤) 도(字, 千, 類, 三, 史) 두(華)	東 동 端(德紅) 동(字, 千, 類, 三, 華, 史)
帝 데 端(都計) 데(字, 千, 類, 三, 華, 史)	對 더 端(都隊) 더(字, 千, 類, 華) 대(三)

當 당 端(都郎) 당(千,類,三,華,史)	抵 더 端(都禮) 더(類,三,華)
丹 단 端(都寒) 단(字,千,類,三,華,史)	篤 독 端(冬毒) 독(千,類,三,華)
多 다 端(得何) 다(千,類,三,華,史)	湛 담 端(丁含) 담(類,三,華)
殿 뎌 定(堂棟) 뎌(字,千,類,三,華)	頭 두 定(度侯) 두(字,類,三,華)
定 덩 定(徒徑) 덩(千,類,三,華,史)	定 덩 定(徒徑) 덩(千,類,三,華)
讀 독 定(徒谷) 독(字,千,類,三,華,史)	代 더 定(徒耐) 더(字,類,三,華,史)
田 뎌 定(徒年) 뎌(字,千,類,三,華,史)	導 도 定(徒到) 도(類,三,華,史)
騰 등 定(徒登) 등(字,千,類,三,華)	堂 당 定(徒郎) 당(字,千,類,三,華,史)
唐 당 定(徒郎) 당(類,三,華,史)	條 ㅅ 定(徒聊) ㅅ(字,千,類,三,華,史)
條 ㅅ 定(徒聊) ㅅ(字,千,類,三,華)	地 디 定(徒四) 디(字,千,類,三,華,史)
臺 대 定(徒哀) 더(字,類,三,華)	臺 더 定(徒哀) 더(字,類,三,華,史)
段 단 定(徒玩) 단(字,類,三,華)	動 동 定(徒摠) 동(字,千,類,三,華,史)
道 도 定(徒皓) 도(字,千,類,三,華,史)	同 동 定(徒紅) 동(字,類,三,華,史)
塗 도 定(同都) 도(類,三,史) 두(華)	徒 도 定(同都) 도(字,類,三,史)
圖 ㅅ 定(同都) ㅅ(字,千,類,三,史) 두(華)	題 데 定(杜奚) 데(三,華)
涕 테 定(特計) 테(字,三,華,史)	太 태 透(他蓋) 태(三,華) 태, 더(史)
墮 타 透(他果) 타(類,三,華,史)	替 테 透(他計) 테(三,華)
歎 탄 透(他旦) 탄(三,華,史)	體 테 透(他禮) 테(字,千,類,三,華)
涕 테 透(他禮) 테(字,類,三,華)	惕 텍 透(他歷) 텍(類,三,華)
天 텨 透(他前) 텨(字,千,類,三,華,史)	廳 텨 透(他丁) 텨(字,類,三,華)
貪 탐 透(他含) 탐(字,類,三,華,史)	帖 텨 透(他協) 텨(三,華)
他 타 透(託何) 타(字,類,三,華,史)	湯 탕 透(吐郎) 탕(字,千,類,三,華,史)
鬩 투 端(都豆) 투(字,類,三,華)	惰 타 定(徒臥) 타(字,類,三,華)
怠 티 定(徒亥) 티(字,類,三,華)	逮 데 定(特計) 데(類,三,華)

위의 字類는 端·透·定母에 속하는 것으로서 이 중 端·定母에 속하는 자류는 그 半切上字에 관계없이 18세기 중양음에서 대부분 ‘ㄷ’으로 표음되었으며, 透母에 속한 字類는 대부분 ‘ㅌ’으로 표음되었다. 이것은 중기음, 18세기 당대의 운서음 및 사략음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다음의 字들은 그 표음에 차이가 있다.

大 대 定(徒蓋) 蟹開1 泰去 대(千,類,三,華) 태(三) 대, 더, 티(史)
 洞 통 定(徒紅) 通合1 東平 동(字,類,三,華)

‘大’는 중앙음에서는 ‘ㄷ’으로 나타나고, 삼운과 사략에서는 ‘ㄷ, ㄷ’ 둘로 표음되어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는, ‘大’가 광운에서 ‘徒蓋切, 他蓋切’의 둘로 표음됨을 볼 때, 二重音字였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洞’ 역시, 洪武正韻에 의하면, 그 반절이 ‘徒摠切’과 ‘他貢切’의 둘로 나타나는데, 전자는 ‘ㄷ’으로, 후자는 ‘ㄷ’으로 대응된 것으로 보인다.

狄 덕 定(徒歷) 梗開4 錫入 덕(字, 類, 三, 華) 덕, 적(史)

弟 데 定(特計) 蟹開4 霽去 데(字, 千, 類, 三) 데, 제(史)

聽 텅 透(他定) 梗開4 徑去 텅(字, 千, 類, 三, 華) 텅, 청(史)

18세기 중앙음에서 ‘狄, 弟’는 ‘ㄷ’으로, ‘聽’은 ‘ㄷ’으로 표음되었으며, 중기음 및 18세기의 운서음에서도 동일하게 표음되었다. 그러나 경상도 방언을 반영한 사략음에서는 고유어의 구개음화에 이끌려 ‘狄, 弟’는 ‘ㄷ ~ ㅈ’의 교체를 보이고, ‘聽’도 ‘ㄷ ~ ㅈ’의 교체를 보여 중앙음과는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차이는 경상도방언이 중앙어보다 구개음화에서 앞섰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② 泥母

男 남 泥(那含) 남(字, 千, 類, 三, 華, 史)

南 남 泥(那含) 남(字, 千, 類, 三, 華, 史)

奴 노 泥(乃都) 노(字, 類, 三, 史) 누(華)

內 니 泥(奴對) 니(字, 千, 類, 三, 華, 史)

能 능 泥(奴登) 능(字, 千, 類, 三, 華, 史)

年 년 泥(奴順) 년(字, 千, 類, 三, 華, 史)

念 념 泥(奴店) 념(千, 類, 三, 華)

板 난 泥(奴板) 난(三, 華)

乃 내 泥(奴亥) 내(千, 類, 三, 華) 내, 너(史)

泥母에 속하는 字類는 18세기 중앙음과 운서음에서 ‘𪚩’을 제외하고는 모두 ‘ㄴ’으로 표음되었다. 그러나 다음의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泥母에 속한 자류 중 ‘難’은 類合에서 이미 ‘ㄴ’으로 표음되었는데도 18세기의 중앙음이나 사략음, 운서음은 모두 ‘ㄴ’으로만 나타나 차이가 있다. 類合에서 보인 ‘ㄴ’은, 訓蒙字會, 千字文, 新增類合에서 來母字 ‘李, 料, 祿’ 등이 ㄴ > ㄴ의 변화로 그 聲母가 ‘ㄴ’으로 표음되었음을 볼 때, 이러한 현상에 대한 과도교정의 결과로 해석된다. 그리고 ‘農’은 사략에서만 ‘ㄴ’으로 표음되었는데, 이것 역시 ㄴ > ㄴ에 대한 과도교정의 결과이다. ‘女’는 三韻과

史略에서 ‘여’로도 표음되었는데, 이것은 구개음화로 말미암아 약화된 ‘ㄴ’이 ‘ㅍ’ 모음 앞에서 탈락된 것이다.

難 난 泥(那干) 山開1 寒平 란(類) 난(千,三,華,史)

農 농 泥(奴冬) 通合1 冬平 농(字,千,類,三,華) 룡(史)

女 너 泥(尼呂) 遇開3 語上 너(字,千,類,華) 녀,여(三) 녀,네,여(史)

‘聶’은 운서음에서 ‘ㄴ’으로 나타난 데 비해 중앙음에서는 ‘ㅅ’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聶’이 자주 사용되지 않아 동일한 성부를 가진 ‘攝’의 음 ‘書涉切’(섭)에 유추된 것으로 생각된다.

聶 泥(尼輒) 咸開3 葉入 념(三,華)

(2) 舌上音(知·徹·澄母)

傳 댐知(知戀) 댐(千,類,史) 견(三,華)	智 디知(知義) 디(字,類,史) 지(三,華)
晝 듀知(陟救) 듀(字,千,類) 주(三,華)	張 당知(陟良) 당(字,千,類) 장(三,華,史)
拏 닐知(陟栗) 질(三)	徹 당知(陟陵) 당(字,類,史) 정(三,華)
重 등澄(直隴) 등(千,類,史) 중(三,華)	丈 당澄(直兩) 당(字,類) 장(三,華)
朝 ㄷᆞ澄(直遙) ㄷᆞ(字,千,類,史) ㅈ(三,華)	程 ㄷᆞ澄(直貞) ㄷᆞ(類) 정(三,華)
兆 ㄷᆞ澄(治小) ㄷᆞ(類,史) ㅈ(三,華)	陟 ㄷᆞ知(竹力) ㄷᆞ(千,類,史) ㅈ(三,華)
冢 퉁知(知隴) 퉁(三,華)	忠 퉁知(陟弓) 퉁(字,千,類) 퉁(三,華)
擇 ㄷᆞ澄(場伯) ㄷᆞ(類) ㅈ(三,華)	

위의 예는 설상음인 知·徹·澄母에 해당하는 자류로서 중기음에서 ‘ㄴ’으로 표음되었던 字들은 18세기의 중앙음에서도 ‘ㄴ’으로 표음되었고, ‘ㅌ’으로 표음되었던 字들은 역시 ‘ㅌ’으로 표음되었다. 그러나 앞의 舌頭 ㅍ이 韻書에서 ‘ㄴ’ 혹은 ‘ㅌ’으로 표음된 것과는 달리, 이 舌上 ㅍ은 운서에서 모두 ‘ㅅ’ 혹은 ‘ㅈ’으로 표음되어, 고유어의 구개음화에 이끌린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것은 고유어의 구개음화와는 무관하다. 설상음이 운서에서 모두 구개음으로 표음된 것은, 三韻과 華東이 東音 定音의 기준으로 삼은 四聲通解에서 知·徹·澄母가 照·穿·牀母와 통합되었는데, 이 통합된 음을 기준으로 하여 東音を 모두 ‘ㅅ’ 혹은 ‘ㅈ’으로 표음

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다음의 자료는 운서음에서 구개음을 반영한 것은 물론이고, 중앙음이나 사략음에서도 구개음과 교체되든지, 또는 구개음으로만 나타난다. 중앙어에서는, 앞의 舌頭音이 구개음화를 보이지 않은 데 비해, 舌上音만이 구개음화를 보인 것은 고유어의 구개음화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운서음의 구개음이 非韻書音, 즉 당시의 俗音에까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앞의 舌頭音에서 사략음은 구개음화된 예가 나타났는데, 그러한 구개음화가 운서음의 영향을 입은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이미 그것이 생산력을 가지고 작용하였음을 보여 주는 좋은 예라고 하겠다.

中 둥, 중	知(陟冲) 通合3 東平	둥(字, 千, 類, 史) 중(三, 華)
長 당, 장	澄(直良) 宕開3 陽平	당(千, 類) 장(三, 華) 당, 장, 장(史)
腸 장	澄(直良) 宕開3 陽平	당(字, 千, 類) 장(三, 華)
追 추	知(陟佳) 止合3 脂平	튜(類) 추(三, 史) 취(華)
輟 철	知(陟劣) 山合3 薛入	털(類) 철(三, 華)
怵 출	徹(丑律) 臻合3 術入	출(三, 華)
仲 둥	澄(直衆) 通合3 送去	둥(類) 중(三, 華) 둥, 중(史)
知 디	知(陟離) 止開3 支平	디(千, 類) 지(三, 華) 디, 지(史)
紂 튜	澄(除柳) 流開3 有上	츄(三, 華) 튜, 츄(史)
治 티	澄(直之) 止開3 至去	티(千, 類) 치(三, 華) 티, 치(史)

(3) 半舌音(來母)

樂 락來(盧各)	락(千, 類, 三, 華) 疑(五角)	路 로來(洛故)	로(字, 千, 類, 三, 史) 루(華)
악(三, 華)	락, 악(史)	令 령來(郎丁)	령(字, 千, 類, 三, 華) 녕(史)
慮 러來(良偸)	러(千, 類) 류(三) 레(華)	里 리來(良士)	리(字, 類, 三, 華) 니, 리(史)
列 렬來(良薛)	렬(千, 類, 三, 華) 념(史)	閭 려來(力居)	려(字, 類, 三, 華) 녀(史)
勵 러來(力制)	려(類, 三) 레(華)	倫 료來(力連)	료(千, 類, 三, 華) 료(史)
累 루來(力委)	루(千, 類) 류(三) 뤼(華)	龍 룡來(力鍾)	룡(字, 千, 類, 三, 華, 史)
누, 루(史)		蓼 료來(力竹)	료(三, 華)
陸 룡, ㄴㄱ來(力竹)	료(字, 三, 華) ㄴㄱ(史)	僂 료來(力竹)	료(三)

敏 唼來(力驗) 령(字,類,三,華)	濫 남來(盧瞰) 람(字,類,三,華)
禮 네來(盧啓) 레(字,千,類,三,華) 네,레(史)	羅 나來(魯何) 라(字,千,類,三,華)
露 노來(洛故) 로(字,千,類,三) 루(華)	荔 너來(郎計) 러(三) 레(華)
魯 노來(郎古) 로(三) 루(華) 노(史)	李 니來(良士) 니(字,千,類,史) 리(三,華)
列 널來(良薛) 렐(千,類,三,華) 널(史)	屢 누來(良遇) 루(類,三,華)
吝 닌來(良刃) 린(類,三,華)	兩 냥來(良獎) 랑(字,千,類,三,華) 냥(史)
稜 능來(閭承) 롱(三,華)	糧 냥來(呂張) 랑(類,三,華)
良 냥來(呂張) 랑(千,類,三,華) 냥(史)	柳 뉴來(力久) 류(字,類,三,華)
倫 눈來(力迤) 룬(千,類,三,華)	輪 눈來(力范) 룬(字,類,三,華)
臨 님來(力尋) 림(千,類,三,華) 님,림(史)	錄 녹來(力玉) 록(類,東,三,華)
綾 능來(力膺) 롱(三,華)	立 님來(力入) 림(字,千,類,三,華) 님(史)
例 네來(力制) 레(字,類,三,華)	六 녹來(力竹) 록(字,類,三,華) 녹(史)
凜 늑來(力稔) 림(類,三,華)	略 낙來(離灼) 락(類,三,華,史)
理 니來(良士) 리(字,千,類,三,華) 니(史)	

來母에 속한 자류는 중기음에서는 ‘李’를 제외하고는 전부 그 성모가 ‘ㄹ’로 나타나고, 18세기 운서음에서는 ‘李’를 포함한 모든 자류가 ‘ㄹ’로 나타난다. 그러나 18세기의 중앙음에서는 ‘ㄴ’으로 대응됨이 주된 경향이며, ‘ㄹ’로 대응된 字도 다수 나타난다. 이렇게 중기음과 중앙음이 차이를 보인 것은 고유어에서 발달한 두음법칙의 영향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사략음에서는, 중앙어에서 두음법칙이 적용되었는데도 그것이 적용되지 않은 ‘略’의 예가 발견되긴 하지만, 중앙어에서 두음법칙이 적용되지 않은 ‘令, 里, 列, 閭, 倫, 累, 陸’ 등도 두음법칙을 수용하여 數的으로 多數를 보인다. 이런 점으로 볼 때, 경상도방언에서 두음법칙이 보다 일찍 발달한 것으로 이해된다. 뿐만 아니라, 경상도방언에서는 ‘良’의 경우 두음법칙의 적용으로 ‘냥’이 된 다음 다시 구개음화의 영향으로 ‘ㅣ’모음 앞에서 ‘ㄴ’이 삭제된 ‘양’이 나타나기도 하는데,¹²⁾ 이것은 앞의 泥母에서 ‘ㄴ’이 삭제된 경우와 동일하다.

12) 심구사략언해에서는 ‘良’ 이외에도 ‘ㄹ>ㄴ>ㅇ’의 변화를 경험한 ‘李, 臨, 烈, 靈’ 등의 예가 더 발견된다.(오종갑 1993)

3) 唇音系

(1) 幫 · 滂 · 並母

- 拜 ㅂ 幫(博怪) ㅂ(字,千,類,三,華)
 百 ㅂ 幫(博陌) ㅂ(字,千,類,三,華,史)
 保 ㅂ 幫(博抱) ㅂ(類,三,華)
 府 ㅂ 幫(方矩) ㅂ(字,千,類,三,華)
 髮 ㅂ 幫(方伐) ㅂ(字,千,類,三) ㅂ(華)
 法 ㅂ 幫(方乏) ㅂ(字,千,類,三,華,史)
 放 ㅂ 幫(甫妄) ㅂ(類,三,華,史)
 非 ㅂ 幫(甫微) ㅂ(字,千,類,三,華,史)
 謗 ㅂ 幫(補曠) ㅂ(字,類,三,華,史)
 反 ㅂ 幫(府遠) ㅂ(類,三,華,史)
 剝 ㅂ 幫(北角) ㅂ(三,華)
 不 ㅂ, ㅂ 幫(分勿) ㅂ(三,華) ㅂ(千,類)
 ㅂ(三,華) ㅂ, ㅂ(史)
 普 ㅂ 滂(滂古) ㅂ(類,三) ㅂ(華)
 譬 ㅂ 滂(匹賜) ㅂ(三,華)
 步 ㅂ 並(薄故) ㅂ(字,千,類,三) ㅂ(華)
 倍 ㅂ 並(薄亥) ㅂ(類,三,華)
 白 ㅂ 並(傍陌) ㅂ(字,千,類,三,華,史)
 婦 ㅂ 並(房久) ㅂ(字,千,類,三,華,史)
 服 ㅂ 並(房六) ㅂ(字,千,類,三,華,史)
 朋 ㅂ 並(步崩) ㅂ(字,類,史) ㅂ(三,華)
 方 ㅂ 並(符方) ㅂ(千,類,三,華,史)
 父 ㅂ, ㅂ 並(扶雨) ㅂ(字,千,類,華) ㅂ, ㅂ(三,史)
 汾 ㅂ 並(符分) ㅂ(三,華)
 逢 ㅂ 並(符容) ㅂ(類,三,華)
 凡 ㅂ 並(符咸) ㅂ(類,三,華,史)
 比 ㅂ 並(毗至) ㅂ(千,類,三,華,史)
 布 ㅂ 幫(博故) ㅂ(字,千,類,三,史) ㅂ(華)
 風 ㅂ 幫(方戎) ㅂ(字,類,三,華,史)
- 栢 ㅂ 幫(博陌) ㅂ(字,類,華,史)
 伯 ㅂ 幫(博陌) ㅂ(字,千,類,三,華,史)
 否 ㅂ 幫(方久) ㅂ(字,類,三,華)
 奮 ㅂ 幫(方問) ㅂ(類,三,華)
 傅 ㅂ 幫(方遇) ㅂ(字,千,類,三,華,史)
 丙 ㅂ 幫(兵永) ㅂ(千,三,華,史)
 飛 ㅂ 幫(甫微) ㅂ(字,千,類,三,華,史)
 博 ㅂ 幫(補各) ㅂ(字,類,三,華)
 分 ㅂ 幫(府文) ㅂ(字,千,類,三,華,史)
 卑 ㅂ 幫(府移) ㅂ(字,千,類,三,華,史)
 壁 ㅂ 幫(北激) ㅂ(字,千,類,三,華)
 本 ㅂ 幫(布付) ㅂ(千,類,三,華)
 班 ㅂ 幫(布還) ㅂ(三,華,史)
 妃 ㅂ 滂(芳非) ㅂ(字,三,史) ㅂ(華)
 浮 ㅂ 並(縛謀) ㅂ(三,華,史)
 部 ㅂ 並(薄口) ㅂ(三,華)
 瓦 ㅂ 並(薄紅) ㅂ(三,華)
 負 ㅂ 並(房久) ㅂ(字,類,三,華,史)
 復 ㅂ 並(房六) ㅂ(類,三,華) ㅂ, ㅂ(史)
 範 ㅂ 並(防范) ㅂ(類,三,華)
 奉 ㅂ 並(扶隴) ㅂ(千,類,三,華,史)
 腐 ㅂ 並(扶雨) ㅂ(字,類,三,華)
 坊 ㅂ 並(符方) ㅂ(三,華)
 肥 ㅂ 並(符非) ㅂ(字,千,類,三,華)
 附 ㅂ 並(符遇) ㅂ(類,三,華,史)
 繁 ㅂ 並(附衰) ㅂ(類,三,華)
 婢 ㅂ 並(便俾) ㅂ(字,類,華)
 八 ㅂ 幫(博拔) ㅂ(字,千,類,三,華,史)
 彼 ㅂ 幫(甫委) ㅂ(字,千,類,三,華,史)

必 필 幫(卑吉) 필(千,類,三,華,史)
 胞 포 幫(布交) 포(三,華)
 編 편 幫(布玄) 편(類,三,華)
 篇 편 滂(芳連) 편(類,三,華,史)
 豐 풍 滂(敷隆) 풍(字,類,三,華)
 平 평 竝(符兵) 평(千,類,三,華,史)

筆 필 幫(鄙密) 필(字,千,類,三,華,史)
 板 판 幫(布縮) 판(字,類,三,華)
 弊 폐 幫(必袂) 폐(類,三,華,史)
 偏 편 滂(芳連) 편(類,三,華)
 品 품 滂(丕飲) 품(字,類) 품(三,華)
 被 피 竝(平義) 피(字,千,類,三,華,史)

중기음에서 唇音系에 속한 자류는 그 성모에 관계없이 주로 ‘ㅂ’으로 표음되었으나 상당수의 字類가 ‘ㅍ’으로도 표음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18 세기의 중앙음, 운서음, 사략음 등에서도 전혀 변함이 없다. 다만 ‘遍, 北, 撫, 夫’에서 중앙음과 운서음, 또는 중앙음과 사략음 사이에 차이를 보인다.

遍 편 幫(博見) 山開4 霰去 변(三,華)
 北 북 幫(博墨,補妹) 曾開1 德入 북(字,類) 북,패(三) 북,비(華) 북,빅(史)
 撫 무 滂(芳武) 遇合3 麌上 무(字,類,史) 부(三,華)
 夫 부 竝(防無) 遇合3 虞平 부(字,千,類,三,華) 부,후,우(史)

‘遍’은 중앙음에서는 ‘ㅍ’으로, 운서음에서는 ‘ㅂ’으로 표음되어 차이를 보이는데, 운서음은 半切을 그대로 移植한 것으로 보인다. 중기음 및 중앙음 ‘ㅍ’은 東쪽으로 정착할 당시에는 ‘ㅂ’이었으나 그 후 고유어에서 발달한 유기음화의 영향으로 ‘ㅍ’이 나타나게 된 것으로 이해된다.(유창균 1968 : 214, 1981 : 452)

‘北’은 중기음, 중앙음, 화동음, 사략음이 다 같이 ‘ㅂ’으로 나타나 차이가 없으나, 三韻에서는 ‘ㅍ’으로도 표음되어 차이가 있다. 같은 운서이면 서도 華東과는 달리 三韻에서 ‘ㅍ’으로 표음된 예가 나타난 것은 三韻 편찬자가 ‘補妹切’에 대응하는 ‘ㅂ’이 東쪽 俗音에서 유기음화되어 ‘ㅍ’으로 바뀐 것으로 파악하고 그것을 표음에 반영하였기 때문이다.

‘撫’는 중기음, 중앙음, 사략음이 다 같이 ‘ㄱ’으로 표음된 데 비해 운서음이 ‘ㅂ’으로 표음되어 차이가 있다. 이것은 전자가 성부 ‘無’(武夫切)에 유추되고, 후자가 반절에 따라 표음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夫’는 중앙음, 중기음, 운서음이 모두 ‘ㅂ’으로 표음되었으나 사략음만

이 ‘ㄷ, ㅎ, ㅇ’의 셋으로 표음되었다. 그 이유는, 당시의 중앙어를 반영한 種德新編諺解와 明義錄諺解에서 ‘士大夫’를 諺解文에서는 ‘사태우’로만 표기하였으며, 史略에서도 ‘太夫’를 언해문에서 ‘티후, 티우’로 표기하고 있음을 볼 때, 이 ‘ㅎ, ㅇ’이 굳어져 한자음 표음에서도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이해된다.(오종갑 1993) 그렇다면 이것은 당시의 경상도방언에서 한자어의 발음 변화가 한자의 발음 변화까지 초래한 경우라고 하겠다.

(2) 明母

孟 밍 明(莫更) 밍(類,三,華,史)	名 명 明(武井) 명(字,千,類,三,華,史)
銘 명 明(莫經) 명(千,類,三,華,史)	暮 모 明(莫故) 모(字,類,三,史) 무(華)
慕 모 明(莫故) 모(千,類,三) 무(華)	貌 모 明(莫敎) 모(字,千,類,三,華)
米 미 明(莫禮) 미(字,類,三) (華)	末 말 明(莫撥) 말(類,三,華) 말,미(史)
耄 모 明(莫報) 모(三,華)	木 목 明(莫卜) 목(字,千,類,三,華,史)
門 문 明(莫奔) 문(字,千,類,三,華,史)	目 목 明(莫六) 목(字,千,類,三,華,史)
牧 목 明(莫六) 목(字,千,類,三,華,史)	馬 마 明(莫下) 마(字,類,三,華,史)
猛 밍 明(莫杏) 밍(字,類,三,史) 명(華)	母 모 明(莫厚) 모(字,千,類,史) 무(三,華)
免 면 明(亡辨) 면(類,三,華) 면,면(史)	務 무 明(亡遇) 무(字,千,類,三,華,史)
問 문 明(亡運) 문(字,千,類,三,華,史)	漠 막 明(慕各) 막(千,類,三,華)
莫 막 明(慕各) 막(千,三,華,史)	望 망 明(巫放) 망(字,類,三,華,史)
忘 망 明(巫放) 망(千,類,三,華,史)	亡 망 明(武方) 망(千,類,三,華,史)
明 명 明(武兵) 명(字,千,類,三,華,史)	盟 밍 明(武兵) 밍(字,千,類,三,華)
無 무 明(武夫) 무(千,類,三,華,史)	薇 미 明(武悲) 미(字,類,三,華,史)
綿 면 明(武延) 면(字,千,類,三,華)	紋 문 明(無分) 문(字,三,華)
聞 문 明(無分) 문(字,千,類,三,華,史)	文 문 明(無分) 문(字,千,類,三,華,史)
尾 미 明(無匪) 미(字,類,三,華,史)	未 미 明(無沸) 미(三,華,史)
萬 만 明(無販) 만(字,千,類,三,華,史)	武 무 明(文甫) 무(字,千,類,三,華,史)
物 물 明(文弗) 물(字,千,類) 물(三,華,史)	罔 망 明(文兩) 망(千,類,三,華)
民 민 明(彌隣) 민(字,千,類,三,華,史)	面 면 明(彌箭) 면(字,千,類,三,華) 면,면(史)
命 명 明(眉病) 명(字,千,類,三,華,史)	閔 민 明(眉殞) 민(三,華,史)

明母에 해당하는 자류는 중기음, 중앙음, 운서음, 사략음이 모두 ‘ㅁ’으로만 표음되어 차이가 없다.

4) 齒音系

(1) 齒頭音

① 精·清·從母

- 卽 ㄱ 精(子力) ㄱ(千,類,三,華,史)
 際 ㄷ 精(子例) ㄷ(類,三,華)
 峻 ㄴ 精(子峻) ㄴ(三,華)
 載 ㄷ 精(作代) ㄷ(字,千,類,三,華,史)
 曾 ㄹ 精(作滕) ㄹ(三,華,史)
 栽 ㄷ 精(祖才) ㄷ(字,類,三,華)
 足 ㅈ 精(卽玉) ㅈ(字,千,類,三,華,史)
 祖 ㄱ 精(則古) ㄱ(字,類,三,史) ㅈ(華)
 作 ㅈ 精(則落) ㅈ(千,類,三,華) ㅈ,ㅈ(史)
 昨 ㅈ 從(在各) ㅈ(字,類,三,華)
 曹 ㅈ 從(昨勞) ㅈ(字,三,華,史)
 昨 ㅈ 從(昨誤) ㅈ(三) ㅈ(華)
 在 ㅈ 從(昨宰) ㅈ(千,類,三,華,史)
 情 ㅈ 從(疾盈) ㅈ(字,千,類,三,華)
 自 ㅈ 從(疾二) ㅈ(字,千,三,華,史)
 字 ㅈ 從(疾置) ㅈ(字,千,三,華,史)
 嗟 ㅈ 精(子邪) ㅈ(三,華)
 此 ㅈ 清(雌氏) ㅈ(字,類,三,華) ㅈ,ㅈ(史)
 蔡 ㅈ 清(倉大) ㅈ(類,三,華) ㅈ(史)
 千 ㅈ 清(蒼先) ㅈ(字,千,類,三,華)
 七 ㅈ 清(親吉) ㅈ(字,類,三,華,史)
 娶 ㅈ 清(七句) ㅈ(三,華) ㅈ(史)
 蒼 ㅈ 清(七罔) ㅈ(類,三,華,史)
 次 ㅈ 清(七四) ㅈ(千,類,三,華,史)
 秋 ㅈ 清(七由) ㅈ(字,千,類,三,華,史)
 請 ㅈ 清(七靜) ㅈ(類,三,華,史)
 就 ㅈ 從(疾猷) ㅈ(類,史) ㅈ(三,華)
- 稷 ㅈ 精(子力) ㅈ(三,華,史)
 祭 ㅈ 精(子例) ㅈ(字,千,類,三,華,史)
 孜 ㅈ 精(子之) ㅈ(三,華)
 宗 ㅈ 精(作冬) ㅈ(字,千,類,三,華,史)
 宰 ㅈ 精(作亥) ㅈ(字,千,類,三,華,史)
 子 ㅈ 精(卽里) ㅈ(字,千,類,三,華,史)
 左 ㅈ 精(則箇) ㅈ(字,千,類,史) ㅈ(三,華)
 躁 ㅈ 精(則到) ㅈ(類,三,華)
 績 ㅈ 精(則歷) ㅈ(字,千,類,三,華,史)
 盡 ㅈ 從(慈忍) ㅈ(千,類,三,華,史)
 前 ㅈ 從(昨先) ㅈ(字,類,三,華,史)
 財 ㅈ 從(昨哉) ㅈ(字,類,三,華,史)
 蠶 ㅈ 從(昨含) ㅈ(字,類,華) ㅈ(三)
 從 ㅈ 從(疾用) ㅈ(千,類,三,華,史)
 靜 ㅈ 從(疾郢) ㅈ(千,類,三,華)
 藏 ㅈ 從(徂浪) ㅈ(千,類,三,華,史)
 醯 ㅈ 精(子肖) ㅈ(類,三,華)
 寸 ㅈ 清(倉困) ㅈ(字,類,三,華,史)
 淺 ㅈ 清(倉翦) ㅈ(類,三,華)
 草 ㅈ 清(采老) ㅈ(字,千,類,三,華,史)
 妻 ㅈ 清(七計) ㅈ(字,類,三,史) (華)
 親 ㅈ 清(七邊) ㅈ(字,千,類,三,華,史)
 倉 ㅈ 清(七罔) ㅈ(字,類,三,華)
 取 ㅈ 清(七庚) ㅈ(千,類,史) ㅈ(三) ㅈ(華)
 清 ㅈ 清(七情) ㅈ(字,類,三,華)
 聚 ㅈ 從(才句) ㅈ(千,類,史) ㅈ(三,華)

위의 예는 齒頭音에 속하는 자류로서 精·從母에 속하는 字들은 중기음에서 주로 ‘ㄗ’으로, 淸母에 속하는 字들은 주로 ‘ㅈ’으로 표음되었는데, 18세기의 중앙음, 운서음, 사략음에서도 동일하게 표음되어 차이가 없다. 그러나 다음의 자류는 구개음화와 관련하여 차이를 보인다.

祖 도 精(則古) 遇合1 姥上 조(字,類,三) 주(華)
 秦 딘 從(匠隣) 臻開3 眞平 진(千,三,華,史)
 節 곁 精(子結) 山開4 屑入 곁(字,千,類,三,華) 널, 곁(史)
 且 차 淸(七也) 假開3 馬上 차(千,類,三,華) 타(史)

‘祖, 秦’은 중앙음이 ‘ㄷ’으로 표음된 데 비해 중기음, 운서음, 사략음은 모두 ‘ㄗ’으로 표음되어 차이가 있으며, ‘節, 且’는 중앙음, 중기음, 운서음이 각각 ‘ㄗ, ㅈ’으로 표음된 데 비해 사략음은 각각 ‘ㄷ, ㅌ’으로 표음되어 차이가 있다. 이렇게 中期音 ‘ㄗ’이나 ‘ㅈ’이 18세기의 中央音이나 史略音에서 ‘ㄷ’이나 ‘ㅌ’으로 바뀌어 표음된 것은 구개음화에 대한 과도교정으로 해석할 수 있을 듯하다. 그러나 앞의 舌頭音에 관한 설명에서 본 바와 같이, ‘ㄷ, ㅌ’이 ‘ㄗ, ㅈ’으로 바뀐 구개음화의 예가 없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과도교정으로 ‘ㄗ, ㅈ’이 오히려 ‘ㄷ, ㅌ’으로 바뀌었다는 해석은 성립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ㄗ, ㅈ > ㄷ, ㅌ’의 변화 원인은 다른 곳에서 찾을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18세기의 운서음에서는 華音의 영향으로 舌上音이 모두 正齒音으로 바뀌어 표음되었음을 앞의 2)(2)에서 이미 보았다. 이러한 변화는 東音 俗音에까지 영향을 미쳐 설상음 ‘ㄷ, ㅌ’이 정치음 ‘ㄗ, ㅈ’으로 바뀌고, 이에 대한 과도교정으로 정치음 ‘ㄗ, ㅈ’이 오히려 설상음 ‘ㄷ, ㅌ’으로 바뀌게 되었다.(뒤의 正齒音 참조)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계속 확산되어 치두음의 ‘ㄗ, ㅈ’까지도 ‘ㄷ, ㅌ’으로 바뀌게 된 것이다.

衰 최, 쇄 淸(倉回,所追) 止合3 支平 쇄(類) 쇄, 쇄(三,華)
 則 즉 精(子德) 曾開1 德入 즉, 축(千,類,史) 즉(三,華)
 沁 심 淸(七鶴) 深開3 沁去 침(三,華)

‘衰’는 중앙음과 운서음에서는 ‘ㅈ, ㅅ’으로, 중기음에서는 ‘ㅅ’으로 나타나 차이가 있는데, 이러한 차이는, ‘衰’의 반절이 광운에서 ‘倉回切, 所追

切'의 둘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그것이 二重音字였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則'은 그 반절에 따라 동음에서 '측'으로 표음되었으나 '側, 測, 側' 등이 '측'으로 발음되자 이들의 성부에 逆類推되어 속음에서 그 풀이 '측'으로 바뀐 것으로 생각된다. '沍'은 중앙음에서는 '심'으로, 운서음에서는 '침'으로 나타나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는 중앙음이 성부 '心'(息林切)에 유추되었기 때문이다.

② 心 · 邪母

昔 석心(思積) 석(字,類三,華)	惜 석心(思積) 석(類,三,華)
孫 손心(思渾) 손(字,類三,華,史)	契 심心(私列) 설(三,華)
醒 성心(桑經) 성(類,三,華)	惺 성心(桑經) 성(類,三,華)
訴 소心(桑故) 소(字,類,三) 수(華)	寺 사心(相史) 스(字,類,三) 시(華)
事 소心(相史) 스(字,千,類,三,華,史)	歲 세心(相銳) 세(字,千,類,三,華) 세, 세(史)
宵 소心(相邀) 소(字,類,三,華)	須 슈心(相兪) 슈(類,三,華)
息 식心(相卽) 식(字,千,類,三,華,史)	西 서心(先稽) 서(字,千,類,三,史) 세(華)
蘇 소心(素姑) 소(字,類,三,史) 수(華)	三 삼心(蘇甘) 삼(字,類,三,華,史)
先 선心(蘇佃) 선(類,三,華,史)	僧 승心(蘇增) 승(字,類,三,華)
塞 식心(蘇則) 식(千,類,三,華)	宋 송心(蘇統) 송(三,華,史)
宣 선心(須緣) 선(千,類,三,華,史)	悚 송心(息拱) 송(三,華)
相 상心(息亮) 상(字,千,類,三,華,史)	修 슈心(息流) 슈(三,華,史)
羞 슈心(息流) 슈(三,華)	四 소心(息利) 스(字,千,類,三,華,史)
新 신心(息隣) 신(千,類,三,華,史)	心 심心(息林) 심(字,千,類,三,華,史)
省 성心(息井) 성(千,類) 성, 성(三,華)	雖 슈心(息遣) 슈(三,史) 슈(華)
私 소心(息夷) 스(類,三,華,史)	司 소心(息慈) 스(字,類,三,華,史)
思 소心(息慈) 스(千,類,三,華,史)	姓 성心(息正) 성(字,類,三,華,史)
性 성心(息正) 성(字,千,類,三,華)	信 신心(息晉) 신(字,千,類,三,華)
肅 숙心(息逐) 숙(類,三,華)	夙 숙心(息逐) 숙(字,千,三,華)
寫 샤心(悉姐) 샤(字,千,類,三,華)	頌 송邪(似用) 송(字,類,三,華)
習 습邪(似入) 습(字,千,類,三,華,史)	續 속邪(似足) 속(千,類,三,華)
嗣 소邪(詳吏) 스(千,類,三,華)	循 순邪(詳邊) 순(類,三,華,史)
旬 순邪(詳邊) 순(字,類,三,華,史)	緒 서邪(徐呂) 서(類,三,史) 서(華)
序 서邪(徐呂) 서(字,類,三,華,史)	尋 심邪(徐林) 심(千,類,三,華)
象 상邪(徐兩) 상(字,千,類,三,華,史)	

心·邪母에 속하는 위의 字類는 중기음, 중앙음, 운서음, 사략음 등이 모두 ‘ㅅ’으로 표음되어 차이가 없으나, 다음의 ‘燥, 肖’는 그 표음에 차이가 있다.

‘燥’는 중기음과 중앙음이 ‘ㅈ’인 데 비해 운서음이 ‘ㅅ’으로 나타나는데, 그것은 중앙음이 성부 ‘巢’(蘇到切)에 따라 표음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肖’는 중앙음과 사략음이 ‘ㅈ’으로, 운서음이 ‘ㅅ’으로 표음되었는데, 운서음의 ‘ㅅ’은 반절의 반영이라고 하겠으나 중앙음의 ‘ㅈ’은 半切上字 ‘私’의 반영으로는 볼 수가 없으며, 廣韻 이외의 다른 운서들의 半切에서도 ‘ㅈ’으로 반영될 근거를 찾을 수 없다. 그런데 ‘肖’와 동일한 성부를 가진 ‘梢, 稍, 哨’ 등은 그 성모가 ‘ㅈ’으로, ‘宵, 銷, 消’ 등은 그 성모가 ‘ㅅ’으로 나타나므로 여기서의 ‘ㅈ’은 전자에 유추된 것이 아닌가 한다.

燥 조 心(蘇老) 效開1 皓上 조(類) 소(三,華)

肖 초 心(私妙) 效開3 笑去 초(三,華) 초(史)

(2) 正齒音

① 照·穿母

諸 제 照(章魚) 제(千,類,三,華,史)

支 지 照(章移) 지(類,三,華)

製 제 照(征例) 제(類,三,華)

趾 지 照(諸市) 지(字,三,華,史)

掌 장 照(諸兩) 장(字,類,三,華)

注 주 照(之戌) 주(字,類,三,華)

質 질 照(之日) 질(類,三,華)

眞 진 照(職隣) 진(千,類,三,華,史)

旨 지 照(職維) 지(字,類,三,華)

瞻 첨 照(職廉) 첨(字,千,類,三,華)

祝 축 照(之六) 축(類,三,華,史)

尺 척 穿(昌石) 척(字,類,三,華,史)

侈 치 穿(尺氏) 치(千,類,三,華,史)

初 초 穿(楚居) 초(千,類,三,史) 추(華)

肢 지 照(章移) 지(字,三,華)

枝 지 照(章移) 지(字,千,類,三,華)

章 장 照(諸良) 장(字,千,類,三,華,史)

止 지 照(諸市) 지(千,類) 즈(三) 지(華,史)

罷 건 照(諸延) 건(三,華)

織 직 照(之翼) 직(字,類,三,華)

整 정 照(之郢) 정(類,三,華)

終 종 照(職戎) 종(字,千,類,三,華,史)

枕 침 照(章荏) 침(字,類,三,華)

鄒 추 照(側鳩) 추(三,華)

楚 초 穿(創舉) 초(類,三,史) 추(華)

春 춘 穿(昌臂) 춘(字,類,三,華,史)

側 측 穿(初力) 측(千,類,三,華,史)

昭 소 照(止遙) 소(類,三,華) 소,소(史)

위의 예들은 照·穿母에 해당하는 자류로서 중기음, 중양음, 운서음, 사략음이 모두 東쪽의 일반적 표음 경향에 따라 ‘ㄱ’ 혹은 ‘ㄷ’으로 표음되었다. 다만 ‘昭’는 일반적인 表音 경향과는 달리 ‘ㅅ’으로 표음되었는데, 그 이유는 성부 ‘召’(寔照切)에 유추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者 자, ㄷ 照(章也) 假開3 馬上 자(千, 三, 華) 자, 지(史)
 詔 ㄷ 照(之少) 效開3 笑去 조(類, 三, 華)
 主 주, ㄷ 照(之庾) 遇合3 麤上 주(字, 千, 類, 三, 華, 史)
 衆 중, ㄷ 照(之仲) 通合3 送去 중(類, 三, 華, 史)
 周 주, ㄷ 照(職流) 流開3 尤平 주(千, 類, 三, 華, 史)
 蚩 티 穿(赤之) 止開3 之平 치(字, 三, 華, 史)
 稱 텅 穿(昌孕) 曾開3 澄去 청(千, 類, 三, 華, 史)

위의 자류는 동일한 照·穿母字이면서 중기음, 운서음, 사략음은 다 같이 ‘ㄱ’ 또는 ‘ㄷ’으로 표음되고, 중양음은 ‘ㄱ~ㄷ’ 또는 ‘ㅌ’으로 표음되어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차이는 구개음화에 대한 과도교정이 표음에 반영된 것으로 설명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앞의 2)(1)에서 본 바와 같이, 舌頭音에서는 구개음화된 예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구개음화에 대한 과도교정으로 처리하는 것은 자체의 모순을 내포하게 된다.

그런데 2)(2)의 설명에서 舌上音字의 운서음이 모두 구개음으로 바뀌어 표음된 것은, 東쪽 定音의 기준이 된 사성통해에서 知·徹·澄母가 照·穿·牀母와 통합되었으므로, 이 통합된 음을 기준으로 하여 동음을 모두 ‘ㄱ’ 혹은 ‘ㄷ’으로 바꾸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러면 여기서의 ‘ㄷ, ㅌ’은 舌上音 ‘ㄷ, ㅌ’이 운서음의 영향으로 正齒音 ‘ㄱ, ㄷ’으로 바뀌자이에 대한 과도교정으로 정치음 ‘ㄱ, ㄷ’이 오히려 실상음 ‘ㄷ, ㅌ’으로 바뀐 것으로 해석된다.

正 정 照(之盛) 咸開3 勁去 정(千, 三, 華) 덩, 정(史)
 之 지 照(止而) 止開3 之平 지(千, 類, 三, 華) 디, 지(史)
 至 지 照(脂利) 止開3 至去 지(三, 華) 디, 지(史)
 志 지 照(職吏) 止開3 志去 지(字, 千, 類, 三, 華) 디, 지(史)
 推 추 穿(叉佳, 湯回) 止合3 脂平 추(千, 類) 퇴(三, 華)

‘正, 之, 至, 志’는 중앙음, 중기음, 운서음이 동일하게 ‘ㄷ’으로 표음되었으나 사략음이 ‘ㄷ~ㅈ’으로 교체되어 차이를 보인다. 이 경우 역시 중앙음의 경우와 동일하게 舌上音 ‘ㄷ’이 운서음의 영향으로 正齒音 ‘ㄷ’으로 바뀌자 이에 대한 과도교정으로 ‘ㄷ’이 오히려 ‘ㄷ’으로 바뀐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그러나 중앙음에서는 설두음에서 구개음화된 예가 한 개도 나타나지 않았으나 사략음에서는, 2)(1)에서 본 바와 같이, 설두음에서도 구개음화된 예가 다수 발견되는 점으로 보아 단순히 정치음이 설상음으로 과도교정된 것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여기서는 설상음과 정치음의 통합으로 말미암아 ‘ㄷ’이 ‘ㄷ’으로 변화를 일으키고, 또 이러한 변화가 舌頭音에까지 확산되어 구개음화를 초래하게 되었으며, 위의 예들은 이 두 경우에 대한 과도교정으로 해석하고자 한다. 즉 舌上音과 正齒音의 통합에 따른 과도교정과 구개음화에 따른 과도교정의 복합 작용에 의한 것으로 해석하고자 한다.

‘推’는 중기음과 중앙음이 ‘츄’로, 운서음이 ‘퇴’로 나타나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華音에서 ‘叉佳切’과 ‘湯回切’의 二重音으로 발음되던 것이 중기음과 중앙음에서는 전자가, 운서음에서는 후자가 표음에 반영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② 牀・審・禪母

乘 승 牀(食陵) 승(字,類,三,華,史)	順 순 牀(食閏) 순(類,三,華,史)
述 술 牀(食聿) 술(類,三,華,史)	食 식 牀(乘力) 식(字,千,類,三,華,史)
世 세 審(舍制) 세(字,千,類,三,華,史)	書 서 審(傷魚) 서(字,千,類,三,華,史)
庶 서 審(商署) 서(千,類,三,華,史)	識 식 審(賞職) 식(類,三,華,史)
手 수 審(書九) 수(字,千,類,三,華,史)	捨 사 審(書治) 사(類,三,華)
詩 시 審(書之) 시(字,千,類,三,華,史)	首 수 審(舒救) 수(字,千,類,三,華,史)
獸 수 審(舒救) 수(字,千,類,三,華,史)	守 수 審(舒救) 수(千,類,三,華,史)
黍 서 審(舒呂) 서(字,千,類,三,華,史)	舜 순 審(舒閏) 순(三,華,史)
產 산 審(所簡) 산(字,類,三,華,史)	生 싱 審(所庚) 싱(字,千,類,三,華,史)
數 수 審(所矩) 수(類,三,華) 수, 수(史)	穡 식 審(所力) 식(字,千,類,三,華,史)
色 식 審(所力) 식(千,類,三,華,史)	瑟 슬 審(所櫛) 슬(字,千,類,三,華)
殺 살 審(所八) 살(字,類,三,華,史)	山 산 審(所閒) 산(字,類,三,華,史)

所 소 審(疏舉) 소(字,千,三,華)	史 소 審(疎士) 소(字,千,類,三,華,史)
使 소 審(疎士) 소(千,類,三) 소,시(華,史)	師 소 審(疎夷) 소(字,千,類,三,華,史)
水 수 審(式軌) 수(字,千,類,三,史) 수(華)	扇 선 審(式連) 선(字,千,類,三,華)
傷 상 審(式羊) 상(千,類,三,華,史)	聖 성 審(式正) 성(字,千,類,三,華,史)
收 수 審(式州) 수(字,千,類,三,華,史)	室 실 審(式質) 실(字,類,三,華,史)
奢 사 審(式車) 사(類,三,華,史)	深 심 審(式針) 심(千,類,三,華)
勝 승 審(識蒸) 승(千,類,三,華,史)	身 신 審(失人) 신(字,千,類,三,華,史)
伸 신 審(失人) 신(字,類,三,華,史)	少 소 審(失照) 소(千,類,三,華) 소,소(史)
鮮 선 禪(常演) 선(字,三,華)	善 선 禪(常演) 선(字,千,類,三,華,史)
寔 식 禪(常職) 식(三,華)	石 석 禪(常隻) 석(字,千,類,三,華)
甚 심 禪(常枕) 심(千,類,三,華,史)	承 승 禪(署陵) 승(千,類,三,華,史)
熟 숙 禪(殊六) 숙(字,千,類,三,華)	孰 숙 禪(殊六) 숙(字,千,三,華)
授 수 禪(承呪) 수(類,三,華,史)	壽 수 禪(承呪) 수(字,類,三,華,史)
氏 시 禪(承紙) 시(字,千,類,三,華)	是 시 禪(承紙) 시(字,千,類,三,華,史)
常 상 禪(市羊) 상(千,類,三,華)	時 시 禪(市之) 시(字,千,類,三,華,史)
盛 성 禪(是征) 성(字,千,類,三,華,史)	誠 성 禪(是征) 성(字,千,類,三,華)
成 성 禪(是征) 성(千,類,三,華,史)	十 십 禪(是執) 십(字,類,華,史) 십(三)
上 상 禪(時亮) 상(字,千,類,三,華,史)	侍 시 禪(時吏) 시(千,類,三,華)
繕 선 禪(時戰) 선(三) 선(華)	市 시 禪(時止) 시(字,千,類,三,華,史)
誰 수 禪(視佳) 수(字,千,類,三,史) 수(華)	晨 신 禪(植隣) 신(字,類,三,華)
臣 신 禪(植隣) 신(字,千,類,三,華,史)	受 수 禪(殖西) 수(字,千,類,三,華,史)

牀・審・禪母에 해당하는 자류는 중기음, 중앙음, 운서음, 사략음에서 거의 전부 ‘ㅅ’으로 표음되었다. 그러나 다음의 字들은 일반적인 表音 경향에서 벗어나든지, 중기음과 중앙음 사이 또는 중앙음과 운서음 사이에 차이가 있다.

助 조 牀(牀據) 遇開3 御去 조(千,類,三,) 주(華)
齣 처 牀(牀呂) 遇合3 語上 조(三) 주(華)
率 술 審(所律) 臻開3 質入 술(千,類,史) 술,률(三) 술,률(華)
說 설 審(失燕) 山合3 薛入 설(字,千,類) 설,세,열(三,史) 설,세,열(華)

‘助’는 중기음, 중앙음, 운서음에서 모두 ‘ㅅ’으로 표음되어 牀母의 일반

적 표음인 ‘ㅅ’과는 차이가 있다. 그런데 이 字의 半切은 廣韻 이외의 集韻, 韻會舉要 등에서도 모두 광운과 동일한 ‘牀據切’로만 나타나고, 切韻에서도 ‘鋤據切’로 나타나 그 半切上字가 東晉에서 ‘ㅅ’으로 표음될 근거를 찾기 어렵다. 그러면, ‘助’의 聲符인 ‘且’에 관심을 돌릴 수밖에 없는데, 이 ‘且’의 반절은 광운에서 ‘子魚切, 七也切’의 둘로 나타난다. 이로 볼 때, ‘助’의 성모가 ‘ㅅ’으로 표음된 것은 성부 ‘且’(子魚切)에 유추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齰’는 중양음이 일반적 표음 경향을 따르고, 운서음은, ‘助’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성부 ‘且’에 유추된 東晉俗音이 四聲通解音에 비추어 五音이 상실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그대로 표음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率’은 운서음에서 ‘ㅅ, ㄹ’의 둘로 표음되었는데, 짐운에서 그 반절이 ‘朔律切’과 ‘劣戍切’의 둘로 나타남을 볼 때 이 字가 二重音字임을 알 수 있다. ‘說’은 三韻에서는 ‘ㅅ, ㅇ’으로, 華東에서는 ‘ㅅ, ㅎ’으로 표음되어 중양음과 차이를 보인다. 이것 역시 광운에서 보면, 그 반절이 ‘失燕, 舒芮, 弋雪’ 등으로 나타나 반절상자 ‘失, 舒’는 ‘ㅅ’으로, ‘弋’은 ‘ㅇ’으로 표음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화동에서 ‘ㅎ’으로 표음된 것은 화동의 華音 ‘워’에 비추어 五音喪失되지 않도록 하려는 의도가 작용한 것이다.

(3) 半齒音(日母)

爾 이 日(兒氏) ㄷ(字, 華) 이(類, 三, 史)	邇 이 日(兒氏) ㄷ(字, 華) 이(千, 類, 三)
仁 인 日(如隣) ㄴ(字, 華) 인(千, 類, 三, 史)	人 인 日(如隣) ㄴ(字, 華) 인(千, 類, 三, 史)
任 임 日(如林) ㄴ(字) 임(千, 類, 三, 史) ㄴ(華)	髡 염 日(汝鹽) ㅅ(字) 염(類, 三) 연(華)
兒 ㄹ 日(汝移) ㄴ(字, 千, 類, 華) ㄹ(三, 史)	耳 이 日(而止) ㄷ(字, 華) ㄷ(千, 類, 三, 史)
二 이 日(而至) ㄷ(字, 華), 이(千, 類, 三, 史)	儒 유 日(人朱) ㅅ(字, 華) 유(類, 三, 史)
日 일 日(人質) ㄴ(字) 일(千, 類, 三, 華, 史)	仍 잉 日(如乘) ㅇ(華) ㅇ(類, 三) 인(史)
然 연 日(如延) ㄴ(華) 연(類, 三, 史)	而 이 日(如之) ㄷ(華) 이(千, 三, 史)
若 약 日(而灼) ㅅ(華) 약(千, 類, 三, 史)	柔 유 日(耳由) ㅅ(華) 유(類, 三, 史)
如 여 日(人渚) 여(千, 類, 三, 史)	入 입 日(人執) ㅅ(華) 입(千, 類, 三, 史)

日母에 해당하는 字類의 중양음은 모두 그 聲母가 ‘ㅇ’으로 표음되었다. 이것은 訓蒙字會에서 ‘ㅅ’으로 표음되다가 千字文과 類合에서 ‘ㅇ’으

로 바뀐 것(‘兒’ 제외)을 중앙음이 그대로 이어받은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것은 ‘髡, 日’을 제외한 字들 모두가 華東音에서 ‘△’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華東 편찬자가 18세기의 중앙음에서 ‘△’의 존재를 인식한 것으로 해석되지만, 華東 편찬자 자신도 그 凡例의 “五音初聲”에서 ‘△’을 半齒音으로 보지 않고 半喉音에 소속시킨 점으로 볼 때, 그 음가는 [h] 정도로 본 것이 아닌가 한다.(유창균1988 : 255)

3. 結 論

국어 한자음에는 正音과 俗音의 두 종류가 공존하고 있다. 그래서 文獻에 따라서는 정음으로 표음되기도 하고, 혹은 속음으로 표음되기도 하여 그 表音에 많은 차이를 보인다. 본고에서 살펴 본, 御製訓書諺解와 御製百行源도 英祖 御製이긴 하나 그 한자 표음에, 당시에 이미 두 권의 韻書가 간행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통적 俗音을 반영하고 있음을 특징으로 한다. 본론에서 비교, 고찰한 중앙음과 중기음, 운서음, 사락음과의 사이에 나타난 차이점의 대략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1) 18세기의 중앙음은 중기음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으나, 華音의 舌上音이 正齒音과 통합되자 이의 영향으로 중앙음에서는 舌上音字의 다수가 ‘ㄷ, ㅌ ~ 스, ㅊ’의 교체를 보이며, 사락음에서는 그것이 齒頭音에까지 확대되었다. 그리고 그에 대한 과도교정으로 齒音系가 舌上音系로 바뀐 字들도 다수 나타난다.

(2) 來母에 속한 字類의 중기음은 ‘ㄹ’이었으나 18세기 중앙음에서는 頭音法則의 작용으로 그 중의 다수가 ‘ㄴ’으로 변했다. 그리고 사락음에서는 그 변화가 더욱 확대되었으며, 그에 대한 過度矯正으로 ‘ㄴ > ㄹ’의 변화를 보인 字들도 나타난다.

(3) 訓蒙字會에서 ‘△’으로 표음되었던 日母字들이 18세기 중앙음에서는 모두 ‘ㅇ’으로 바뀌어 표음되었다.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것은 ‘髡, 日’을 제외한 字들 모두가 華東에서 ‘△’으로 표음되고 있는 점인데, 그 音

價는 [h]로 추정된다.

(4) 18세기의 중앙음과 당대의 운서음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발견된다.

① ‘割, 闊, 吁, 畦, 撫, 沁, 燥, 齟’ 등은, 중앙음이 성부에 유추된 음으로, 운서음이 半切 제통의 품으로 표음되었다.

② ‘合, 解, 向, 活, 推, 率, 說’ 등은 중국음 자체가 二重音字였기 때문에 그 중 일부를 반영한 俗音과 전부를 반영한 韻書音 사이에 차이가 보인다.

③ 中期音, 中央音, 三韻音, 史略音 등과는 달리 華東音에서는 聲母 ‘ㅇ’이 나타난다. 그것은 그 音價가 ‘ㅇ’과 달랐기 때문이라기보다는 華東 편찬자가 東音 定音의 기준으로 삼은 華音 初聲 ‘ㅇ’으로부터 五音이 喪失되지 않도록 하려는 定音態度가 작용한 것으로 이해된다.

參 考 文 獻

- 南廣祐(1973), 朝鮮(李朝)漢字音研究, 一潮閣.
- 朴炳采(1971), 古代國語의 研究(音韻篇), 高麗大 出版部.
- 吳鍾甲(1989), “18世紀 國語의 漢字音 表記,” 語文學(韓國語文學會) 第50輯.
- 吳鍾甲(1992), “女小學의 漢字音 表記,” 國語國文學研究(嶺南大 國文科) 第20輯.
- 吳鍾甲(1993), “十九史略諺解의 漢字音 表記,” 民族文化論叢(嶺南大 民族文化 研究所) 第14輯.
- 俞昌均(1968), “現代國語漢字音의 性格과 體系,” 明知大學 論文集 I.
- 俞昌均(1983), 韓國古代漢字音의 研究 II, 啓明大 出版部.
- 俞昌均(1988), 國語學史, 螢雪出版社.
- 李基文(1972), 國語史概說, 塔出版社.
- 李敦柱(1977), “華東正音通釋韻考의 俗音字에 대하여,” 國語國文學論叢(李崇寧先生 古稀紀念).
- 李敦柱(1990), 訓蒙字會 漢字音 研究, 弘文閣.
- 李潤東(1988), “中期 韓國 漢字音의 研究,” 博士學位 論文(啓明大 大學院).

李載春(1991), “19世紀 忠北方言의 音韻論的 研究,” 碩士學位 論文(檀國大學院).

田光鉉(1982), “御製訓書諺解, 御製百行源 解題,” 御製訓書諺解·御製百行源(影印本)에 수록, 弘文閣.